

투데이 칼럼

함부로 해서는 안될 말

언어 생활에서 “삼사일언”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말을 할 때 세 번 생각하고 말을 해야 실수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언어습관이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 생활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대에게 아니함만 못한 말이 있고 차라리 하지 않은 편이 나은 말이 있다. “그 나이에 대단해 보이세요” 도 그중 하나의 표현이다. 선의로 하는 말이지만, 그 나이에 대개 보기 흉하다는 것처럼 들려 모욕적이고 업신여기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피곤해 보인다”는 말도 상대에 따라 공감을 나타내려는 의도와 달리 “왜 그렇게 풀이 영망이나” 는 소리가 들린다. “살이 빠졌네요” 라는 칭찬도 마찬가지로.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예전엔 똥똥했다”고 과거를 소환하는 지적질이나 다름없다. “늘 그렇게 해왔다”라는 말은 무사안일과 비타협적 태도를 자인하는 언사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잘못을 떠나 말은 일에 소극적이고 미숙하다는 소리로 들린다. “그건 내일이 아니다”도 같은 느낌을 풍긴다. 직장에서 이런 말을 하면 팀 동료나 구성원임을 부인하고 ‘왕따’를 자처하는 것과 같다. 뒷걸음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이나 할 말이다.

“그러게 내가 뉘랬어”는 듣는 사람을 돌아버리게 한다. 우월함을 거들 강조하려는 말인데 어린아이가 동생 놀리는 듯한 기억을 불러일으켜 유치하고 웅충하게 들린다. “집에도 내가 말했던 것처럼”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마찬가지로 기분 나쁜 말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지 않는 것에 기분이 상했다고 불쾌감을 내비치며 나무라는 듯하다. “못하겠냐” “해보기는 하겠다” 라는건 특히 직장에선 안 될 소리다.

스스로 “그 일을 할 노하우나 의욕, 또는 톨 다 없다” 라는 말과 다름없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못하겠냐” “노력해 보겠다” 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만”이나 “외람되지만” 도 아니함만 못하다.

질문을 하든 의견을 개진하는 자신을 폄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어리석은” “외람”이라고 하는 순간, 듣는 사람들은 존중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돼 곧바로 무시모드로 들어간다.

이와 같이 우리말은 생각하기에 또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용이 다양하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해야 한다. 아니함만 못한 말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말은 상황중심, 공감중심, 과장된 언어들의 특징이 강하고 자기 편의 중심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반네타나후 시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2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 벤구리온 공항에서 시위대가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히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베나민 네타나후 총리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해리스 “바이든 재선 도전은 무모”



키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뉴욕 타운홀에서 열린 회고록 ‘107일’ 출간 기념행사(북 투어)에서 발언하고 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저서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대선 재선 도전이 무모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의 중도 사퇴로 대선 후보로 나선 해리스는 당시 선거 운동을 10일밖에 할 수 없었다.

사설

탈북민 호칭을 적극 검토하라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을 줄여서 부르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북향민’ 등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연말까지 용어를 선정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는 ‘탈(脫)’자다. 탈북은 어감도 안 좋다. 아직까지는 ‘북향민’이 제일 지지가 많은 것 같다.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한다. 현재 이를 줄여 탈북민이라고 부른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대체 명칭을 선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률 용어도 변경할지 검토한다. 탈북민이라는 용어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남한 사람들 인식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 체제경쟁이 치열하던 냉전 시기 귀순 용사 또는 귀순자로 불렸다. 1990년대 북한 식량난으로 북한이탈주민이 크게 늘어난 뒤에는 탈북자로 불리기도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첫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05년 탈북자 대신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도입했다.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았다.

그러나 탈북민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났다. 새터민이 북한 체제에 대한 반대 때문이 아닌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떠났다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것이다.

이에 통일부는 2008년 가급적 새터민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58.9%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노인회 간호업무 협약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와 대한간호협회 전북특별자치도 간호사회가 9월 16일 도 연합회의실에서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통합 돌봄 체계 마련과 UN데이 기념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노인의 권익 증진과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과 더불어 6.25 참전용사와 유엔 참여국의 희생을 기리는 UN 데이의 의미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려는 양 기관의 공동 의지를 담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노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간호·요양·돌봄이 연계된 통합체계 구축 △존엄한 생애말기를 위한 돌봄 환경 조성 △재가 임종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양성 제도적 기반 마련 △UN 데이 국가 기념일 지정 및 법정 공휴일화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정책 제안과 캠페인 전개, 각종 포럼·세미나·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념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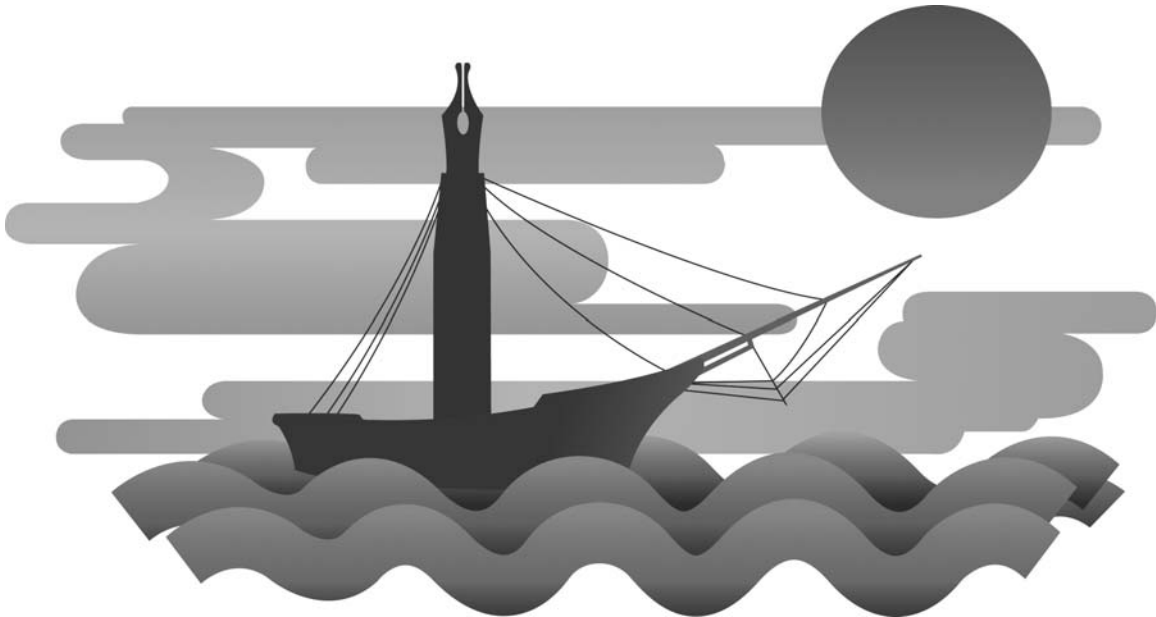
김두봉 전북연합회장은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돌봄 체계와 복지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과 함께 참전용사의 희생과 가치를 기리는 기념문화 확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은숙 간호사회장은 “간호사회는 생명과 돌봄을 지켜온 전문 인력으로서 노인 복지와 평화 확산 운동 모두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인의 행복과 권익증진, 국제사회 연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